

자료제공 : 2024. 2. 1.(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
한강이용증진과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11쪽

한강전략사업부장	이예림	3780-0870
한강이용증진과장	이진오	3780-0661
교통기획팀장	진선영	2133-2212
노선팀장	박흥식	2133-2281
공공자전거팀장	김해수	2133-2431

잠실~여의도 단 30분 '한강 리버버스'... 서울시, 수상 대중교통 시대 연다

-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리버버스' 구체적 운항계획 발표...올 10월 총 8대 운항 시작
- 마곡, 여의도, 잠실 등 높은 수요 예상되는 7곳에 선착장 조성, 김포는 단계적 확대
- 시간표 따라 정시운항,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 급행 노선 1일 총 16회 운항
- 요금 3천원, 6만 8천 원 기후동행카드 사용 시 무제한 이용 가능
- 선착장은 지하철·버스로 도보 5분 내 접근, 전원 좌석제·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 강화
- 안전관리 철저... 향후 선착장, 선박 단계적 확대, '30년 250만 명 이용 예상

#. 망원동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여의도에 위치한 회사까지 그동안 버스와 지하철로 이동했고 약 40분 정도가 소요됐다. 최근 '한강 리버버스' 운항소식에 이용해 봤더니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해서 앞으로도 매일 타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의도까지 지하철보다 빠르게 도착했고, 선내 카페테리아에서 산 샌드위치, 커피를 먹으며 아침까지 쉼길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

#. 건국대학교 재학생 B씨는 자전거 타기가 취미인데 기존 대중교통은 자전거를 들고 타기가 어려워 주말에만 라이딩을 즐겼다. 그런데 '한강 리버버스'에는 자전거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은 마곡에서 독섬까지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한다. 개인 좌석에 있는 테이블에서 과제도 하며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

#. 잠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C씨와 D씨는 업무 특성상 퇴근 후 여의도에서 고객과 미팅할 일이 잦다. 퇴근길 버스·지하철은 사람들로 너무 붐비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주 택시를 탔는데 교통 체증도 있고 2만원이 훌쩍 넘는 택시비도 부담이 돼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는 ‘한강 리버버스’로 교통수단을 바꿨다.

□ 잠실(송파구)에서 여의도(영등포구)를 단 30분 만에 주파하고 교통체증 없이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이 서울에 등장한다. 서울시는 올 10월부터 한강 물길을 따라 서울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한강 리버버스’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잠실 사이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상·하행 편도로 운항한다. 길이 35m·폭 9.5m로 한 번에 탑승 가능한 인원은 199명이며 평균속력은 17노트(31.5km/h), 최대속력은 20노트(37km/h)다.

□ 기후위기시대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만큼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약 48%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우선 8대가 운항을 시작하고 이후 확대 계획이다. 편도요금은 3천 원이며 기후동행카드(6만 8천 원)로는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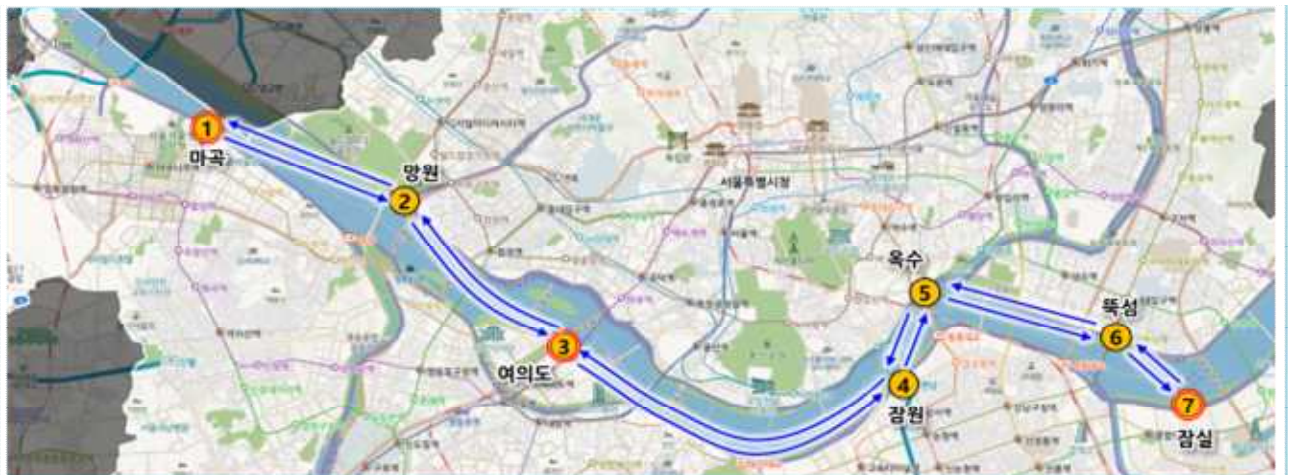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4월 리버버스 사업추진 방향을 발표 이후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시간표, 이용요금 등 ‘한강 리버버스’의 구체적인 운항계획을 2월 1일(목) 발표했다.

□ 워라벨 시대에 발맞춰 육상에 치우쳐 있던 기존 대중교통을 수상까지 확장,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서울 곳곳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연결해 ‘3천만 관광객 시대’ 미래 서울의 핵심 수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마곡, 여의도, 잠실 등 높은 수요 예상되는 7곳에 선착장 조성, 김포는 단계적 확대>

□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곳에 조성된다. 시는 주거·업무·상업·관광 등 배후 지역별 특성과 수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계, 나들목 및 주차장 접근성, 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착장 위치를 최종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착장별 위치〉



	선착장 위치	선정 사유
마곡	가양나들목 인근	가양동, 마곡동 등 주거 수요, 마곡산업단지 업무 수요, 서울식물원 등 관광 수요 고려
망원	망원한강공원 내 망원나들목 인근	망원동, 성산동 등 주거 수요, 망리단길, 하늘공원 등 관광 수요 고려
여의도	여의도한강공원 내 이벤트 광장 인근	여의나루역(5호선) 접근성 우수, 여의도 전체 주거, 업무, 상업, 관광 수요 고려
잠원	잠원한강공원 내 신사나들목 인근	신사동 및 압구정동 주거 수요, 가로수길 등 상업, 관광 수요 고려
옥수	옥수나들목 인근	옥수역(3호선, 경의중앙선) 접근성 우수, 옥수동, 금호동 등 주거 수요, 3호선 통한 을지로 및 강남 방면 업무지역 환승 수요 고려
뚝섬	뚝섬한강공원 내 청담대교 하부	뚝섬유원지역(7호선) 접근성 우수, 뚝섬한강공원 관광 수요 고려
잠실	잠실한강공원 내 잠실나들목 인근	잠실동, 신천동 등 주거수요, 롯데월드 등 상업, 관광 수요 고려

- 다만, 당초 검토했던 김포~서울 노선은 김포시와 긴밀한 협력아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김포아라한강갑문 인근에 설치 예정인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과 연계해 향후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선착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버스노선 신설, 진입 도로 정비, 인근 주차장 설치 등에 김포시 예산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25년 이후 선박 추가 도입 및 선착장 추가 조성 등의 단계적 추진을 검토 중이다.

<시간표 따라 정시운항, 출·퇴근 시 15분 간격, 급행 노선 1일 총 16회 운항>

- '한강 리버버스'는 앞으로 7개 선착장을 상행(마곡→잠실)과 하행(잠실→마곡)으로 구분해 편도로 운항한다.
- 운항 시간은 평일 6시 30분~22시 30분(68회 운항), 주말과 공휴일 9시 30분~22시 30분(48회 운항)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6시 30분~9시와 18시~20시 30분에는 15분 간격, 그 외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은 30분 간격으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항해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마곡·여의도·잠실 선착장 3곳만 정차하는 '급행노선'도 출퇴근 시간대에 16회 운항한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노선 이용 시에 75분이 소요된다면, 급행노선은 21분이 단축된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바쁜 출·퇴근 시간대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다.

<선착장별 소요시간>



<요금 3천원, 6만 8천 원 기후동행카드 사용 시 무제한 이용, 교통편익 확대>

- ‘한강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3,000원으로 확정했다. 교통체증 없고, 전원 좌석제·선내 카페테리아 등 타 교통수단 대비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장점과 요금변화에 따른 이용수요 분석 결과, 최대 지불의사액 및 전체 사업의 재무적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요금을 책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 또한 ‘한강 리버버스’ 이용 전후 수도권 대중교통 연속 이용 시 요금 추가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인천과 논의해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과의 환승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버버스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한 권종(따릉이 포함 시 6만8천원, 미포함 시 6만5천원)도 추가 출시 계획이다.
 - 요금은 버스·지하철처럼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이며, 환승할인을 위해서는 하차시 무조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한다.
 - 교통카드가 없을 경우 선착장에 설치될 발권기에서 승차권을 구입 후 탑승할 수 있으나, 타 대중교통과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 이외에도 이용 방식과 수요별 다양한 할인이 적용되는 맞춤형 요금제도 도입 예정이다. 정기이용 승객을 위한 월간·연간 등 기간제 이용권, 서울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1·3·7일권 등 ‘한강 리버버스’ 만의 특화된 전용 요금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지하철·버스 이용한 도보 5분 내 접근, 전원 좌석제·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 강화>

- 선착장까지의 접근성도 대폭 강화한다.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도보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여의도 ▲옥수 ▲뚝섬 3개 선착장에 대해선 보행로 정비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접근로 주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지하철역과의 연계가 다소 부족한 ▲마곡 ▲망원 ▲잠원 ▲잠실 4개 선착장은 나들목 등 주변 도로 여건을 고려해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버스노선은 선착장과 인접한 주거·업무·상업·관광지역 및 지하철역 등을 거치고, 신설·조정된 버스정류장에서 선착장까지 도보로 5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불편 없이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 최종 버스노선은 교통수요량 분석(OD분석, Origin- Destination) 후 확정하며, 운수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리버버스 운항 시기에 맞춰 변경된 노선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 이와 함께 모든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 15~30대를 배치해 시민들이 따릉이를 타고 선착장으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 ‘한강 리버버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용객 편의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는 것. 탑승객 전원 좌석제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모든 좌석에는 개인 테이블이 있어 간단한 업무와 선내 카페테리아에서 구입한 식음료도 즐길 수 있다. 또, 이동 중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파노라마 통창도 설치한다.

- 선박 내에는 자전거 거치대 22개도 설치해 타 대중교통 이용 시 어려웠던 자전거 휴대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휠체어석 배치와 무장애 설계(Barrier-Free Design)로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착장 내에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편의시설과 승객 대기실도 함께 조성한다. 대기실 및 리버버스 선내에는 실시간으로 리버버스 위치와 도착시간 등을 알 수 있는 리버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RIT ; Riverbus Information Terminal)도 설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가 기존 대중교통만큼 편리하고, 편의성·친환경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서울의 新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철저, SH공사·이크루즈 합작법인 설립해 공공성·전문성 동시 확보>

- 아울러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가 새롭게 도입되는 대규모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선박 운항의 안전을 면밀하게 살펴 승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선박교통관제시설(VTS) 적용을 위해 해양경찰청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강 내 리버버스 항로 설정, 항로표지 정비 등의 안전시설 보강을 통해 리버버스 운항 노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운항 종사자 안전교육,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과 관계기관(한강경찰대, 119 수난구조대, 해양경찰청 등)과의 비상대응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또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 운항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SH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SH공사가 당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주)이크루즈와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한 후 SH공사는 경영과 회계, (주)이크루즈는 선박 운항을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 초기 사업비와 운영비를 양사가 지분 비율만큼 투자하며,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오는 3월 SH공사의 출자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에 합작법인 설립 및 사업자 변경 등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 10월 8척 운항 시작…향후 선착장, 선박 단계적 확대, '30년 250만 명 이용 예상>

- 한편, 서울시는 올해 10월 정식운항을 목표로 선착장 조성, 접근성 개선, 선박 건조 등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선착장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사업은 2월까지 설계해 9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선박은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2월부터 건조에 착수한다.
- 시는 '25년 이후에는 ‘한강 리버버스’ 활성화 추이 등을 반영해 한강 주요 지점인 ‘상암’, ‘노들섬’, ‘반포’, ‘서울숲’을 비롯해 ‘김포아라한강 갑문’, ‘당산’ 등으로도 선착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선박 수도 '26년 10대, '27년 12대, '29년 14대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 또한, 향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등 인근 수도권 주민들도 ‘한강 리버버스’를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기존 광역 교통체

계와의 연계방안을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이용수요 분석 결과, 연간 ‘한강 리버버스’ 탑승객은 ’25년 80만 명에서 ’30년 2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환경적 측면에서 승용차 운행이 리버버스로 전환돼 연간 약 9천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한강 리버버스’가 조기에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착장 내 편의점·카페·음식점 등 부대사업 활성화로 수입을 극대화해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빠른 시간 내 정착·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 시는 부대사업 수익 포함, 전체 사업에 대한 이익 발생시 운영사업자와 이익을 50:50으로 공유한다. 운영사업자에게는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동기를 부여하고, 시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추구 방지와 공유 이익을 선착장 등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해, 리버버스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0월 서울의 수상 대중교통 시대가 개막한다. ‘한강 리버버스’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경험하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강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한강 리버버스’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3천만 관광객’시대를 열고, 아울러 도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리버버스 제원

선박 친환경 선박(8척)
규모 199인승, 길이 35m, 폭 9.5m, 150ton
속도 20노트(37km/h)

48% CO₂ 절감

- 1. 친환경 엔진(전기-디젤)**
· 디젤엔진 대비 탄소배출 48% 절감
- 2. 파노라마 통창/계인테이블**
· 한강경치 및 야경 조망
· 이동시 개별업무가능
- 3. 선내 카페테리아**
· 간단한 식음료 제공
- 4.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 이번 선거장 여의도
- 5. 자전거 거치대 (22개)**

□ 모바일 플랫폼 연계 및 실시간 운항정보 제공 등

모바일 플랫폼 연계
 마이카, 홈, 여행
 어디로 갈까요?
 아이콘: 기차, 버스, 택시, 지하철, 자전거, 리버버스, 비행기, 자동차, 케이블카

실시간 운항정보
 리버버스 02번
 미곡 → 잠실 (방면)
 ① 정보 ② 지도 ③ 승객정보
 옥수 선착장 검색
 목록: 마곡 선착장, 망원 선착장, 여의도 선착장, 잠원 선착장, 옥수 선착장

최적경로 찾기 제공
 장소, 주소, 버스 검색
 검색: 잠실 선착장, 여의도 선착장
 이동수단: 자동차, 버스, 자전거, 도보, 배
 지도: 최적 경로 표시

□ 리버버스 운항노선 및 시간



□ 리버버스 이용요금 및 선착장

요금

이용 요금 3,000원
 - 평일·주말 단일요금체계

기후동행카드 68,000원 무제한 이용
 *따릉이 미포함시 65,000원

선착장

<p>Type A(2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원, 여의도, 잠원, 독섬, 잠실 ✓ 승객대기 공간 및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p>Type B(1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곡, 옥수 ✓ 승객대기 공간 및 편의점 등
--	--

환승할인

- 지하철 및 버스 환승 할인
- 수도권 광역버스도 OK

기후동행카드

- 지하철, 버스, 따릉이와 함께 리버버스 무제한 이용

맞춤형 요금제

- 이용자 특성별 요금제 마련
- 주간, 월간, 연간 이용권
- 1·3·7일권 이용권
- 관광상품 연계 이용권